

第272回國會  
(臨時會)

# 國防委員會會議錄

(임시회의록)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8年3月26日(水)

場 所 國防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태영)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2. 자료제출 요구의 건
3.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태영) 인사청문회
4.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태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審査된案件

- |   |   |
|---|---|
| 1.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태영)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     | 1 |
| 2. 자료제출 요구의 건 .....                     | 1 |
| 4.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태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 2 |
| 3.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태영) 인사청문회 .....           | 2 |

(09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성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첫 번째 합동참모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1일 김태영 합동참모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24일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한 후 오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경과보고서도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 4월 9일에 실시되는 총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등 위원님들의 여러 바쁜 정치일정을 감안해서 간사 위원들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부득이 오늘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한 번에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보도록 위임하는 의결을 인사청문회 시작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정치 여건 등으로 부득이 빠듯한 청문회 일정을 진행하게 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과 합동참모의장후보자의 깊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 1.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태영)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09시17분)

○위원장 김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태영)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청문회 관련 계획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동참모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2. 자료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신청하신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듯이 총 59건

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4.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태영)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 순서를 바꾸어 의사일정 제4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태영)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보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3.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태영) 인사청문회

○위원장 김성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태영) 인사청문회를 상정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해당 직책 수행능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공직임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청문회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현역 군인 중 최고의 지위에 있는 합동참모의장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청문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태영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영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태영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08년 3월 26일

공직후보자 김태영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존경하옵는 김성곤 국방위원장님, 또 국방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군을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성원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현역군인으로서 처음으로 합참의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책임지고 나갈 합참의장 후보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예롭게 생각함과 동시에 그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69년 1월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이래 지난 39년여의 기간동안 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투철한 직업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부여된 소명과 영광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익우선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

태의 국지분쟁과 초국가적인 위협들이 중요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국들 간에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첨단 전력의 증강으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반도에는 남북간 협력과 대치의 이중구조가 병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다양한 도전 속에서도 동맹의 가치와 정통성을 공유하는 가운데 북한 위협 대비 위주의 군사동맹을 넘어서 미래지향적·안정적·포괄적 군사동맹으로의 발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창군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제한된 여건 속에서 최상보다는 최선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국력신장에 걸맞게 현존 위협에 대한 확고한 대비 태세는 물론 미래안보 환경에 대처할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합참의장으로 임명된다면 국가통수권자의 통수 지침을 구현하여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육성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저는 합참의장으로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주안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위협은 물론 어떠한 유형의 위협과 도전에도 대비하는 전방위 국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완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승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와 군사 유대의 강화, 신뢰의 증진을 통해서 한미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시작통권의 전환에 대비하여 전구작전 지휘체계를 보장하고 네트워크 중심작전을 구현할 수 있는 작전 수행체제를 발전시킴으로써 한 국군 주도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략환경 변화를 기초로 미래지향적인 선

진 군대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국적 군사 전략을 발전시키고 정예화된 군사력을 건설함으로써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위역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유리한 전략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변국 및 우방국과의 군사외교 활성화, 국제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 확대, 해외 파병체제의 발전을 통해서 대외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대다운 군대,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고 부여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가운데 정부 시책을 적극 구현하고 국민의 편익을 보장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국민의 군대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불확실한 전환기적 안보 상황 속에서 항구적인 국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방위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할 숭고한 사명이요, 소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청문회가 저의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시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저의 소신과 구상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전달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공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孔星鎭 委員 서울 강남 을 출신 공성진 위원입니다.

우선 합참의장으로 내정되신 김태영 대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해군본부 감사에서 제가 NLL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의를 드렸더니 당시 송영무 총장이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이고, 그리고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다. 따라서 반드시 NLL을 영토 조항으로 사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NLL이 영토 개념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또 하셨거든요. 당시 3군사령관이셨지요, 작년까지?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1군사령관이었습니다.

○**孔星鎭 委員** 아, 1군사령관이셨지요. 어떻습니까? NLL이 영토 개념입니까,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NLL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필히 지켜야 할 그런 선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거의 영토에 준하는 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孔星鎭 委員** 영토에 준하는 선이다……

합참의장의 임기가 2년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孔星鎭 委員** 특별한 경우에 연임이 되거나 뭐 이렇습니까? 아니면 항상 2년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통상 2년으로 돼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연임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孔星鎭 委員** 향후 2년간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저희가 통상 얘기할 때 안보 위협은 크게 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위협이 가장 큰 위협이 되었고, 그 외에 우리 주변에 저희보다 훨씬 강대한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테러라든가 이런 불특정환 위협이 또한 어디서나 흩어져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위협에 저희가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 저희 군인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孔星鎭 委員** 그러면 그중에서 북한의 위협은, 예를 들면 과거 연평해전이나 서해교전과 같은 형태로도 나타날 것이고, 또는 북한의 급변 사태를 우리가 또 상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孔星鎭 委員** 지금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북한 전문가가 향후 5년 내에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동북아 안보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계획이 어떤 게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정권에서도 말이 나왔던 북한 사태의 급변, 계획이 지금 저희 군 자체도 있고, 또 한미연합으로도 개념계획으로 발전된 바가 있습니다.

○**孔星鎭 委員** 그렇습니다. 바로 그 개념계획인데요, 이 개념계획을 작계 형태로 업그레이드시

켜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주권 문제 운운해서 지난 정권 때는 좌절이 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알고 있습니다.

○**孔星鎭 委員** 그러면 오픈플랜(OPLAN) 5029를 수립을 하셔야 될 텐데 할 의지가 있습니까, 의장으로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그것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여기에서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만큼 완벽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孔星鎭 委員** 상부의 지침이 있어야 작전계획 수립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孔星鎭 委員** 여기에서는 합참보다 작전계획 수립…… 군령에 있어서 상부가 어디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과 국방장관이라고 하겠습니다.

○**孔星鎭 委員** 그러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의지를 전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孔星鎭 委員** 판단하실 때 이 정부에서는 작계 5029로 격상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건의를 하실 생각입니까? 그분들도, 군령의 최고 지휘가 합참의장 아니겠습니까? 가장 전문가 중의 전문가인데 본인은 어떻게 건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지침을 주는 대로만 처신을 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당연히 제가 현역의 최선임자로서 건의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저희 한국군 단독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측의 지원을 받아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깊이 고려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아주 세부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못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더 연구해서 군통수권자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孔星鎭 委員** 그 연장선상에서 연평이나 서해교전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는 발언을 하심

으로 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혁혁한 전과를, 우리가 후세에도 하나의 역사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해전들이 그동안 묻혀 갔는데 이때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실무책임자로 있지 않았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교전 당시에는 제가 합참본부장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다른 지휘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孔星鎭 委員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런 해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동의합니다.

○孔星鎭 委員 우리 김태영 대장께서는 서독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또 영국의 국방대학원에서 수학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국제통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 중의 하나가 선진안보인데, 그리고 국제협력 강조, 강화 이런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孔星鎭 委員 PKO 상비군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저 개인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력의 또는 저희 군의 규모에 맞게끔 적절한 규모의 PKO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는, 군에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을 발전시켜 놓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빠른 즉응, 유엔의 요구에 빨리 즉응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법적인 뒷받침이 돼 줘야만 그런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파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孔星鎭 委員 지금 국력의 규모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해외 상비군이라든가 파견군은 육군의 특전사를 중심으로 편성이 되고 규모도 지금 중대급으로 편성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3군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라도 이걸 해병대 대대급으로 상비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작전본부장을 할 때 저희가 이라크에 파병을 하면서 해병 1개 소대 플러스 정도 규모를 이

라크에 파병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대 규모는 저희가 볼 때 좀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적정 규모의 해병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孔星鎭 委員 그러니까 적정 규모라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국력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를 넘나드는 무역대국으로 급성장을 했고, 또 우리 한국인 인질 피랍사태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국제적인 위상을 실감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규모라면 과연 중대급이나 대대급이나 혹은 연대급이나라는 것도 합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셔가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孔星鎭 委員 잘 판단을 해 주시고, 또 이것도 특히 3군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타군의 사기도 많이 올려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孔星鎭 委員 그다음에 LST-2, 해병대 차기 상륙함 문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실무자들한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孔星鎭 委員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합참 차원의 움직임은 전혀 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4500t급으로 그대로 지금 강행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제가 누누이 그 부당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LST라는 것은 특히 방재, 재난구호 여기에도 얼마든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과거 2차 대전 때 활용하던 4500t급까지는 미래지향적인 장비가 될 수 없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저희가 상륙이라는 작전을 고민하면서 그러면 상륙 규모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사실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상륙을 할 수 있는 그 규모를 고려해서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것으로서는 상륙수송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또 평시에 기지나 이런 데 물자수송 또 평화유지 활동 이런 걸 고려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현재는 4500t급이 적절한 전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또 하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면 한번 세부

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추가적인 발전 요소가 있으면 다시 발전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孔星鎭 委員 이런 장비라는 것은 20년, 30년 이렇게 미래를 보고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孔星鎭 委員 그리고 앞으로는 정규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테러와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은 위기상황 이런 리스크에 대비하는, 대안 방제도 마찬가지이고 미국 같은 경우 카트리나 그런 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때 군이 민간을 대신해 가지고 다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목적 장비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논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살펴 가지고, 7월 달에 집행계획에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전에 저한테 담당자를 대면보고시켜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듣고 제가 잘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孔星鎭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공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통합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사병들의 군복무기간이 계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라크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전은 재래식 무기보다는 전자전 또 정보전 그런 첨단기술이 활용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병들이 군 첨단장비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복무기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습득하는 과정이 좀 짧을 수 있고, 또 이것을 후임병에게 전수시키는 것, 인수인계시키는 데 있어서 그 노하우를 잘 인수인계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과 달리 그런 첨단기술을 이용한 형태의 무기 사용 기술

에 있어서는, 그런 노하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인수인계토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현재 각 부대에 계속적으로 장비가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들을 잘 교육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잘 후임한테도 인계를 하고 하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 군 생활을 해 보셨으면 아시겠습니까마는 부대에서 사실 많은 업무 중에 경계라든가 또는 부대 관리 이런 분야의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가능한 한 아웃소싱 쪽으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이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쪽으로 고민을 할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복무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병사들이 장기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최근에 해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병들의 사기를 높여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병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마는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저는 단독 침대를 사용하게 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함께 자고 있는데, 단독 침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정상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어느 정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실 때부터 이게 추진이 돼 가지고 지금 전방에서부터 이런 단독 개인 침대를 쓰게끔 시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략 전방부대에…… 전방부대일수록 잘돼 있는데 전방부대부터 해서 지금 한 15% 정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15% 내지 십칠팔% 정도까지가 단독 침대를 쓸 수 있도록 전부 개선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계속 추진해 나

가기 때문에 아마 2015년, 13년인가 15년 정도까지 되면 모든 병사들이 과거처럼 침상에서 자는 게 아니고 각각 단독 침대를 쓸 수 있도록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요. 그것을 좀 서둘러서 가급적…… 2015년까지 그게 가야 되는 사항인가요? 서둘러서 조속한 기간 내에 복지 향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침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또 하나 사병들의 관심사가 핸드폰 사용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일부 사병들은 핸드폰 사용이, 어느 특정 부대에 한해서만 그런 것인지 몰라도 가능한 것 같고 또 어떤 군인들은 보니까 핸드폰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게 해도 되는 것 아닐까, 모든 사병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지 또는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아직까지 기본적으로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미군부대 같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에는 일체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미 2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검토해서 한번 발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물론 업무시간에 그것을 사용하면 곤란한 문제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히 얘기하면 가령 부모님도 아들이 휴가를 자주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시간 아닌 때, 예를 들면 취침 전이라 할지 그런 때 핸드폰으로 전화한 통을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군의 경우와 같이 우리 군도 많이 성숙했으니까 핸드폰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알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요, 지뢰 피해 얘기입니다. 전방 지역에서 가끔 지뢰 폭발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부상들을 당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28일에도 강화군

불음도 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이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인지뢰대책회의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만 대인지뢰로 인한 사고가 37건이나 되고요, 그중에 4명은 사망을 했고 또 발목 손 이런 데를 절단한 사람도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해수욕장 등지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다는 것도 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뢰 제거를 제가 알기에도 군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현재 지뢰 제거 작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 인통제선 이남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고 과거에 공군의 레이더기지 같은 데 주변에 대인지뢰를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 분야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것을 군의 능력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진행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작전본부장할 때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민간인 지뢰 제거하는 민간인 회사를 해서 민간인 회사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군에서, 국방부에서 그 능력을 체크해서, 점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법을 만들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곧 국회에 상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앞으로 그런 전문회사가 창설이 되고 그런 회사들이 적극 개입하게 되면 보다 빠른 속도로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석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군에서 지뢰 제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06년에도 7000여 개를 제거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2007년에도 2000여 개를 제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은 예를 들어 홍수가 진다거나 하면 떠내려 오기도 하고 해서 예측 못한 곳에 지뢰가 묻혀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래서 군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든 국외든 기술력이 입증된 민간 업체에다 일을 맡겨서 좀더 완벽하게 다 제거했으면 하고 요망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알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재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건 위원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감사합니다.  
○유재건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의정 역사상 처음으로 합동참보본부 의장을 청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3월 26일이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첫 번 청문회에 합격한 합참의장이 대한민국에서 최일등 장군으로 우리 군의 사표가 됐다 하는 것이 기록에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력을 잘 훑어보니까 붙이고 뺄 게 별로 없이 우리가 바라던 군인정신 그대로 살아오신 분이요 특별히 경력사항도 대단하기 때문에 국방정책이나 기획관리라든가 작전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질의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간이 더 허락되면 많이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오늘은 그저 그런 전문적인 것을 떠나서 또 근무하신 근무처도 그동안 청와대비서실이라든가 국방부 정책기획국, 작전본부 등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질의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3월 26일을 특별히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군의 사표가 된 우리 대한제국의 최초의 외국 의장, 육군 장군 안중근 의사가 10시 15분에 여순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해방된 지 몇십 년 됐고 건국한 지 몇십 년 됐고 사이비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설치고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잃은 국회지만 그래도 오늘은 우리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김장군 청문회에 제가 바쁜 일이 많이 있지만 일부러 나왔습니다.

격려하고, 그리고 두고두고 기록에 남는 대한민국 군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독일에서 유학생할 하시면서도 한국군의 위상을 높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孔星鎭 委員 철새……  
○유재건 위원 좀 조용히 해, 철새가 뭐야?

공성진 위원, 그런 발언 하지 마세요. 남 얘기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나는 국회를 떠날 사람이라고요. 마지막, 당신의 선배가 얘기하는데 그런 잡음 넣고 그러는 게 예의입니까?

- 孔星鎭 委員 죄송합니다.

- 유재건 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독일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졌는데, 어떤 사람 책에서 제가 이런 걸 읽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미국인 장군이 독일인 참모를 데리고 일본인 사병을 지휘하는 군대가 최강의 군대다,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약한 군대는 중국인 장군이 일본인 참모를 데리고 이탈리아 사병을 지휘하는 군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성을 다소 반영한 것이 아닌가……

최강 군대의 일본인 사병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최약 군대의 일본인 참모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마도 중국인은 조직적인 리더십이 부족하고, 일본인 참모진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명령만 했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참모들을 일컫는 게 아닌가, 융통성도 없고 전략을 세우는 것도 아주 획일적으로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탈리아인은 다들 개성이 강해서 제멋대로 놀기 때문에 통솔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비유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독일 군대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배운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을 배워 오셨나요?

-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일에서……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미국의 제너럴 스태프, 소위 일반참모 제도가 저희 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도 됐고 여러 나라에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는 데는 서로 국민성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반영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 외에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독일의 부사관들의 수준이나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주 참 교육이 잘되어 있습



니다.

제가 거기서 교육받을 때 배운 것으로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굉장히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건 위원** 김 장관께서는 최초로 대대급 부대인 상륙수 부대를 동티모르에 파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아프간 문제라든가…… 사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생생하지만 2004년 이라크 파병 당시도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에 같이 협력하고,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아주 효율적으로 제공해서 국회 활동에 도움을 많이 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원했고, 우리도 국회에서도 원했고, 우리 몇몇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하셔서…… PKO를 상비군으로 약 1000여 명 내외로 주둔시키는 것이 한국의 위상이나 국제관계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의 국력에 걸맞고 또 국제적인 속에서의 저희의 위상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규모의 PKO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건 위원** 존경하는 김송자 위원이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750명의 우수한 인력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국민들도 많이 있고, 정치권에서도 많이 있고, 국방 당국자들도 상당 부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대해서 내정자, 지명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군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또 저희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내부에서 좀더 깊은 토의를 통해서 하여간 모두가 잘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건 위원** 조금 아까 제가 안중근 의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억하시겠지만 화랑대 교정에 세워진 비각에도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면서 일본 관리에게 써 준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그런 가르

침이 지금도 우리에게 팽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군의 최고 지휘관으로 근무하시면서 매일 같이 사고가 나고, 군인에 대한 적절치 못한 비난도 있었고 또 대민 관계를 잘……

국민을 위한 군대, 국민 속의 군대를 만들려고 우리 국방 당국자들이 애쓴 것을 저희들이 알고, 서로 협력한 것들이 다 기억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인은 군대 내의 군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 속에 있는 군대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발표하신 5가지, 중요한 복무방침이라고 그럴까, 오늘 의견 주신 것은 아주 적절하고, 특별히 네 번째·다섯 번째 항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꼭 복원되고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문제를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이 우리 군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몸에 새기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권고하시고, 지시하시는 그런 최고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유재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유재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鶴松 委員** 경남 진해 출신의 김학송 위원입니다.

먼저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합참의장후보자로 내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제가 얘기 듣기로도 육·해·공군 장성들 중에서도 우리 김태영 대장께서는 상당히 병사들까지 챙겨 주는 ‘덕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金鶴松 委員** 앞으로 육·해·공군의 덕장의 모습으로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에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답변 중에서 “우리 안보 위협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위협이냐?” 했을 때 “첫째는 북한, 그리고 둘째가 주변국, 세 번째가 테러”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 金鶴松 委員** 그런데 북한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협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
- 金鶴松 委員** 우리의 안보에 대한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입니까?
-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실제로 북한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단순한 군사적인 것만 아니라 전체로 보았을 때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가이면서도 모든 것을 군사 제일주의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 하여간 그런 군사적인 면에서 지금 우선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울에 대한 적의 포병화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강하게 되어 있고 해서 그런 저희하고 대칭 전력이 아닌 비대칭적인 요소들로서 화력,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고……
- 金鶴松 委員** 그렇지요.
-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저희 후방지역에 침투하게 되는 침투세력이 엄청나게 많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 金鶴松 委員**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대로 비대칭 무기인 핵이 제일 첫째 우리한테 위협이 될 것이고, 둘째는 지금 현재 북한이 세계 수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 그리고 세 번째가 장사정포를 비롯한 재래식 무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동의합니다.
- 金鶴松 委員** 그러면 핵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데 북한이 2007년 10월 9일날 핵실험을 했는데 이 핵 자체가 군사적으로 볼 때 실험이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봅니까?
-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지금 평가는 반 정도의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곤 위원장, 김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 金鶴松 委員** 그렇다면 후보자께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현재 북한은 플루토늄은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아마 6, 7개 정도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 지금 탄두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한 핵무기로 개발되었다는 증거를 확인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적인 추적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鶴松 委員**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핵을 선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핵실험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북한은 제가 알기로 2005년 2월달에 핵을 보유했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2006년 10월 9일날 핵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군사적으로 성공했나, 실패했냐고 물었을 때 반쯤 성공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핵 보유를 한 국가이다, 이런 전제 속에서 우리가 안보태세를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지금 국제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한 국가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저희는 모든 국방 대비태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金鶴松 委員** 지금 후보자께서 서면질의 답변에 대해서 본인에게 준 것은 ‘지금 현재 40kg에 해당되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 6kg짜리를 계산을 했을 때 한 6, 7기의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맞습니다.

○**金鶴松 委員** 그런데 요즘은 핵이 소형 경량화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에 달아서 미사일에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것이 750kg 이하짜리거든요. 현재 0.5kt 짜리의 핵을 세계적으로 개발해서 보유한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번 실험했던 것이 강도가 3.58로 나왔는데 이것이 소형화 경량화 0.5kt 짜리 내외로 본다면 핵 보유를 여러 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저는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지난번에 핵실험을 한 것은 아예 동굴에다가 그것을 넣어 놓고서 폭발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핵무기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직도 소형화를 달성한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소형화가 완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鶴松 委員**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의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의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 쪽에 사용되지 않게끔 하는 것,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미사일에 대한 방어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핵이 우리 지역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鶴松 委員** 그렇지요? 저도 생각하기에는 제일 첫째는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핵을 쓰지 못하는 핵 억지 정책이 국제 공조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유사시에 핵을 사용한다는 징후가 있을 때는 정밀 타격하는 방안이 합참에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金鶴松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정밀 타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후보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합참의장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탐지를 해서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공군력에 대한 전력 증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서 K-15라든지 KF-16이라든지 이런 데 JDAM을 달아서 폭격을 하는 방법 또는 해군에 의한 이지스함을 건조를 해서 목표물이 있는 가까이에 가서 정밀 타격을 하는 방법, 이러한 해·공군력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바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력 증강 계획을 가지고 지금 꾸준히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金鶴松 委員** 특히 제 지역이 지금 현재 해군이 주로 있는 진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방개혁 2020에 보니까 이지스함을 3대 정도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군 쪽과 자주국방네트워크라는 민간으로 구성된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변국과 대비해 볼 때 우리는 3면을 바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지스함을 주축으로 한 기동함대사령부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 기동함대사령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3개 전단으로 구성이 된 이지스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섯 척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후보자로 계실 때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국방개혁 2020에 있는 이지스함 세 척에 대한 건조계획을 6대로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실제로 저희가 해군 하나만을 생각할 때는 분명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지스함 한 척을 건조하고 장비를 갖추는 비용이 대략 한 척당 1조 3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군도 필요하고 공군도 필요하고 지상군도 전력 증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것을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 가용성, 또 저희 합동성 차원에서의 전력의 필요성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100% 존중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鶴松 委員** 해군 쪽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알겠습니다.

○**金鶴松 委員** 이상입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자** 다음은 박찬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석 위원** 통합민주당 박찬석 위원입니다.

진심으로 합참의장으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감사합니다.

○**박찬석 위원** 지금 세계화 이런 사회 속에서 국제적 감각을 가진 장군이 책임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노무현 정권 때 ‘실패한 정권’, ‘실정한 정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국방 분야, 특히 작전 분야에 있어서 실패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저도 그 당시에 비록 의장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작전본부장 또 육군의 기획관리참모부장 또 수도방위사령관 이러한 중요한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국방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많은, 서로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죽 추진해 왔고, 제가 볼 때 그 분야에 대해서 큰 문제나 이런 것은 서로 해소하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지적할 만한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석 위원** 참모총장을 지내고 국방부장관을 지낸 김장수 씨가 그쪽으로 가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간 건지…… 그때 물으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될 거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나라 일이고, 한 정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실정을 했다면 뭘 실정을 했는지 알아야 이명박 정권에서도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것을 줌…… 이런 것이 실정이기 때문에 합참의장으로서 고쳐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석 위원** 그런데 별로 없어요. 굉장히 떠들고 부풀려 가지고 하는 이야기, 별로 없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만한 대통령이 정말 다음에 또 나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 중에 우리 김태영 의장후보께서는 부사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 독일에서 공부를 해 보시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현대전에서 부사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역할이?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실제로 전반적인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은 주로 장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창끝의 전력은 우리 병력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부사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큰 계획을 실천으로 옮겨서 마지막 그것이 창끝의 전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부사관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사관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부사관이 없이는 군의 전쟁은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석 위원**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보면 장

교와 사병만 있었지 사실상 부사관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으셨고 했고 가장 소외된, 군 내부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으로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합참의장님이 2년간의 재임기간으로 얼마나 전력 증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위원님, 부사관에 대한 정책이 없고 부사관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방부나 합참의 이런 보직 외에도 야전군의 거의 모든, 각 계급에 필요한 지휘관 직책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 할 때마다 부사관들을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부사관들이 지금까지도 매우 열심히 해 줍니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정책이 없고 그 사람들이 똑바로 하게끔 잘 못 끝었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그 부사관들이 지금도 현직에도 있고 전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열심히들 했고, 또 우리 군의 부사관 정책은 우리 군이 예산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못할 뿐이지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돼서 적극적으로 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석 위원** 내가 장군님이, 우리 김태영 후보자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김태영 후보자는 분명히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나는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부사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창끝의 전력, 정말 탱크를 직접 몰고 다녀야 되고 쏘야 되고 또 유도탄을 날려야 될 사람은 전문 지식을 가진 부사관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찬석 위원** 창끝의 전력이 부사관들에게 달려 있는데 지휘관에 따라서 부사관에 대한 대우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선적 차원에서. 그러나 진심으로, 저는 정책이 없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간단하게 나타나는 게 부사관에 지원하는 후보자들의 학력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장교에 비해서. 장교와 같이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중요한 전력을, 전력 증강에 대단히 중요한 인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정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사병에 관한 것은 부모가 챙깁니다. 여기는 부사관에 관한, 제가 이만큼 이렇게 부사관을 4년 내내 떠들어도 부사관 한 사람 저한테 “이러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하고 호소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지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기보다도 우리 김태영 합참의장후보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의 군을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하더라.’ 내가 그것을 장갑차부대에 갔을 때, 기계화부대에 갔을 때 느낀 겁니다. 고급 장비가 있는데 사병들이, 상병이 맡고 병장이 그걸 맡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1년만 하면, 1년 반만 하면 나가야 될 사람들이 훈련받는 기간 6개월간 받고 거기 와서 좀 알 만 하면 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전쟁을 하겠느냐, 입으로 만날 완전무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창을 쥔 사람들의 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게 너무나 소홀하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저희가 아주 정말, 군이 초창기에는 부사관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게 좀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늘 주장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석 위원 더 박차……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저희가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석 위원 정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감사합니다.

○박찬석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외한으로 들어와서 우리 군을 보면서 정말 군을……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도 어느 사관학교 졸업식에 가서 “군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쇄신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군은 그동안에 오랜 전통이 있었지만도 많은 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군의 비율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의 위협도 있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다른 인접 국가에 대해서 위협은 해군이나 공군력의

증강이 필요한, 우리는 너무나 육군 비중으로 되어 있던 말이에요.

특히 장성들의 비율은 여기에서도, 자료에서도 좀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육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대전의 감각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군 수뇌부들의, 특히 국방부 수뇌부들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의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시킬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의 모습이나 이런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방개혁 2020에서는 실제로 보면 현재의 비율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해군이나 공군은 그 규모의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육군은 실제로 현재의 규모에서 3분의 2 정도의 규모로 다운사이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야의 조절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과거의 순수 지상군 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지상군과 해군 공군이 병존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석 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잘 해서 우리나라의 전력 증강과 국방개혁의 선두 지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자 다음은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聲九 委員 먼저 합참의장 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축하를 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감사합니다.

○李聲九 委員 청문회 하면 주로 재산 문제나 도덕성을 관심사로 두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 질의라기보다 제가 늘 많이 주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휴전선에 배치된 북의 장사정포에 대한 보다 완벽한 대책을 국감 때나 장관, 합참의장들한테 늘 당부해 왔는데 그 부분을 역시 한 번 더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새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요지는 지금 북의 장사정포가 갯도에 깊숙이 숨어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전에, 개전 한 시간에 1만여 발, 하루에 5만 발 이상의 피해를 피할 수 없고 그런 피해를 받으면 사실 초죽음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초전에 장사정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 그 방법이 달리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북의 장사정포가 한 350여 문 되는 게 위치가 다 확정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겨냥한 지대지미사일을 한 발씩이라도 개전과 동시에 터뜨릴 수 있는 이런 접근 방법으로 해야 우리가 장사정포의 피해를 초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당부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합참의장의 몫이 제일 크리라 여기면서 한 번 더 당부를 거듭 드립니다.

제가 별명이 장사정포 위원입니다. 장사정포를 제가 하도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하루에 5만 발, 한 시간에 만 발이 떨어지는데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막아져야 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李聲九 委員 한 번 더 당부를 하면서, 질의라기보다 합참의장 후보자가 군령의 최선임자로서 군 통수권자나 장관을 잘 보좌하고 또한 휘하 장병들을 잘 지휘해서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와 한미군사동맹 등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말했던, 약속했던 사항들을 반드시 수행해 달라는 당부와 격려로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자 다음은 김송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자 위원 민주당 김송자 위원입니다.

국회에는 역시 경륜을 갖춘 원로 선배님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이유를 한번 느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격려 말씀은, 관록 있는 전임 국방위원장으로서, 또 국제의원연맹 IPU에서는 집행이사로서 존경하는 유재건 위원님께서 후보자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방·안보 분야의 과제 중의 하나가 전작권 전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군도 잘 알고 있듯이 창군 원로, 성우회, 재향군인회, 외교

대사, 경찰총수, 심지어 종교인들까지도 전작권 이양 반대운동을 벌여 오고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신문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송자 위원 조금 전에 후보자의 모두발언에 보면 의장으로 임명이 되면 통수권자의 통수지침을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임 국군통수권자의 통수지침을 받아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열흘 후에 전작권을 이양한 윤광웅 전 국방장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통수권자의 지침을 그대로 받아들인 윤광웅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어렵겠지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죽 추진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발적인 사태로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것이 단순하게 그 2건만 갖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전서부터 한미 관계에 죽 변화가 오면서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송자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알아듣겠고요. 어려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질였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공직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공직자의 길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바른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상기시키려고 말씀드립니다.

당시 최초의 전작권 이양을 결정한 사람은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이상희 국방부장관이었습니다. 물론 전제조건은 있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북한 노동당 규약 폐기, 이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싸그리 무시되고 2012년이라는 시기만 결정이 돼 버린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 ‘노, 안 됩니다.’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2년만 끝면 정권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결정이 된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을 했더니 그때 이상희 국방부장관도 전작권 이양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군의 준비태세가

갖춰지는 시기로 전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지적을 했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의장후보자께서도 장관과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니겠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생각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송자 위원** 그래도 군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동안 한 1년 동안 봐 가면서 '자주'라는 명분으로 정말 쥐서는 안 될 것을 주던 그런 정부에서도 군이 나름대로 전제조건에 빠진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양 로드맵 작성 시에 정치권이 아닌 군이 한국군의 독자적 전쟁 수행능력을 검증하도록 설정을 해 뒀고, 또 나아가서 한미 고위급 검증단이 최종 평가를 하는 등 안전장치를 해 뒀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믿을 만한 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국가안보가 군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군은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이 정말 전작권을 이양하더라도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북한 핵문제 해결, 이것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잘 되면 좋은 일이지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등 안보 여건이 우리 군의 준비상황이 마련되는 시기에 전작권 이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지요?

(김명자 간사, 황진하 간사와 사회교대)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동의합니다.

○**김송자 위원** 예, 하여튼 역사는 우리 군의 말과 행동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국방과 안보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알겠습니다.

○**김송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진하** 김송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조흥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조흥 위원** 고조흥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군의 현안사항,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사항에 대해서 합참의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군사시설보호법, 지난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돼서 상당한 부분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신정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과거의 완화

된 그런 법보다 더욱더 완화하겠다, 예를 들면 제한구역 25km를 15km로 한다든가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군사시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됐지만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서 또는 그 적용·운용에 대해서 합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또 새로 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을 새 정부의 공약에 따라서 좀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군사시설보호법 그 당시에 제가 작전본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보호법이 잘 완결되도록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려고요.

지금 군사시설보호법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완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합참의장으로 보임이 되면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군의 시설도 운영이 되면서 그쪽의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진하 간사, 김성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조흥 위원**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이 군사시설보호법이 돼 있습니다. 잘 못 사는 전방 지역을 위해서 합참의장으로 되시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알겠습니다.

○**고조흥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사격장, 저희 지역에 보면 원평사격장 같은 곳이 굉장히 현안 문제가 돼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이런 사격장 이전이라든가 주민들과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무슨 특별한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현재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훈련장 문제입니다. 저희가 훈련장을 소요의 한 67%, 한 3분의 2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데 현재 훈련장도 지역 주민들과 일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그 문제도 가능한 한 훈련장을 통합을 하면서 피해가 되는 그 지역 주민들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계속 발전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저희가 수렴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조흥 위원** 예,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피해 주민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현재 법사위원회에 가서 잠겨 있습니다마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 지난번에 새로 되신 국방장관계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참의장님은 병역을 필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병사들에게 이런 혜택이랄까요, 불이익한 기간,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최소한도의 보완인 이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걸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복무를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런 것은 지금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조흥 위원**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고조흥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전방 사병, 전방이든 후방이든 우리 사병들 병영시설이 지금 많이 개선되고 급식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참의장 하시는 동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군의 각종 사고의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보면, 요즈음에도 내무반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모든 게 발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생각하는 병영을 위해서, 또 그것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도 막을 수 있고 또 군 복무기간을, 군에 있는 기간을 그야말로 손해가 아니라 뭔가 새로 배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기간이다 하는 이런 효과를 얻으려면 우선은 월급을 많이 준다거나 구타가 없다거나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훈련을 심하게 받더라도, 생활관이랄까 내무반에 들어가면 회복할 수 있는 포근한 장소로 만들어 주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병영시설 특히 편안한 병영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 병사들이 자기의 청춘의 가장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꼭 군인으로서 필요한, 전투원이 되기 위한 강한 훈련은 철저히 시키고 대신 훈련이 아닌 나머지 휴식시간은 정말 좋은 시설에서 휴식하면서 자기 개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조흥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합참의장 하시는 동안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우리 군 병영문화 개선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고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위원** 모든 위원들께서 합참의장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해 주셨고 저도 축하를 드립니다.

창군 60년이죠?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자 위원** 최초로 현역군으로서 인사청문을 받고 계십니다. 합참의장의 임무—군사전략 기획, 작전계획 수립, 작전 지휘—즉 장관의 군령을 보좌하는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띠고 계십니다.

저는 군사력 건설에 대한 소요의 제기 부분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국방정책의 기조로 국방개혁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동의합니다.

○**김명자 위원** 그동안 국방부는 미래전 대비 전력 구축을 강조했고 또 기존의 플랫폼 중심의 획득정책에서 벗어나서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을 해야 한다는 것을 표방해 왔습니다.

그런데 표방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전력증강 계획을 보면 여전히 군별·병과별 균형 중심의 전력증강이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전의 핵심이라고 하는 CAISR, 물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진척이 더디고, 그래서 결국 실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 합동성 강화에 대한 정책 의지, 전략적 접근, 이것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즉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지난 4년 동안 국방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도 우리 각 군이 대형 획득사업의 조기 착수 또는 신규 추진을 강조하면서 ‘우리 군 예산은 꼭 따라 한다’ 이렇게 국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전력 증강의 계획—마스터플랜—, 그리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 편성되는 것과 사이의 불일치가 있어 보인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환기적인 안보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국방정책을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국방목표가 미래전, 그리고 미래와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초점이 어디에 더 맞춰지고 있습니까? 미래전에 대비하는 방위충분성 전력 확충 이것이 목표인지 아직도 여전히 현존 위협, 즉 대북 억지력 주력 이것이 목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위원님께서 대부분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존 위협에 대한 것도 절대 소홀하게 할 수 없고 또 미래전에 대한 준비도 결코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국방개혁 2020에 의해서 아주 상세히, 비교적 상세한 계획이 지금 만들어져서 그것이 더욱더 심화돼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미래, 2020년 그 이후를 바라보는 세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의 투자비는 그런 방향에서 투자가 되고 있고, 현재 현존 전력은 현재의 정상운용 차원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는 두 가지를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 우리는 2020 그 계획을 세워놓고 아주 세부적으로 그 분야로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같이 저희가 병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김명자 위원** 병행을 한다,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미래지향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아주 관성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환 과정에서 일부 단계적인 접근은 불가피하겠지만 불일치성, 괴리 이 부분은 좀 치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전력 증강 소요 제기, 그리고 소요 결정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뭐라고 보고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지금 소요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합동성과 상호운용성 또 군별 기능적인 균형발전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합동 개념에 근거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하달하는 소요지침이 있고 각 군이 거기에 따라서 소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기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원칙들이 지금 소요 제기와 소요 결정 단계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실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완벽하게 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화된, 저희보다 더 선진화된 군대에서도 안 되는 부분이 가령 소요 제기의 정확한 검토를 위한 실험 이런 것들이 잘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 가용능력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고 잘하겠습니다.

**○김명자 위원** 원천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운영상에서는 소요 제기와 소요 결정에 대해서 별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문제 인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점이고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복안이 있으신지를 묻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어려운 점이 미래에 어떠한 전력이 합동성에 맞춰서 제일 중요하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인데 그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모의실험을 하는데 이 모의실험의 기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든 완벽성을 기하려고 노력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보다 완벽한 모의실험을 통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전력 증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위원** 전력 증강 소요 제기와 소요 결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범위를 넓혀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쟁 상황에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합동성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약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17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 미스터 장사정포도 계시고 또 미스터 부사관도 계십니다. 저는 군사 R&D와 방위산업 그리고 복지 이 두 쪽지를 갖고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의 연계 이게 매우 부족하다 이게 소요제기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결국은 산업경쟁력, 국가경제성장 여기에 대한 기여도가 그 전문학적인 국방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광범위하게 말씀드린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통합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이것을 향해서 선택과 집중의 예산 기획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김명자 위원** 제가 이것을 특히 강조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다. 국방개혁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원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자 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양상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국민의 눈에 보이는 이 국방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전문학적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아주 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국방개혁, 국방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조금 더 하시지요. 조금 더 하시고 마치…… 아주 많으니까, 추가질의하실 게?

○**김명자 위원** 황진하 위원님 마치시고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위원장 김성곤** 그래요, 그럼.

황진하 위원님!

○**황진하 위원**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합참의장으로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감사합니다.

○**황진하 위원**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의 첫 합참의장이라는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라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첫 합참의장이고 또 청문회 대상이 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위원** 모두발언을 통해서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육성하겠다 하면서 여섯 가지의 주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상당히 잘 파악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공감이 되는 내용으로서 그런 어떤 중점을 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알겠습니다.

○**황진하 위원** 그래서 우리 군대가 사기가 높고 또 완벽한 대비태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래를 향한 선진군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합참의장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역량을 잘 발휘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위협에 관해서 북한의 위협이다 또 잠재적인 주변국의 위협이다 그다음에 불특정 위협이다 이런 세 가지로 구분하셨어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장, 김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황진하 위원** 그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겠다고 한 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나온 ‘국방개혁 202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황진하 위원** 그런데 2020을 금년도에 첫 번째로 재검토하고 보장·반영시켜야 될 그런 해가 되어 있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맞습니다.

○**황진하 위원** 지금 그 점에 있어서 대개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장을 시켜야 된다면 이것을 재검토해야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포인트를 잡고 계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 여건에 변화가 좀 있고 그다음에 현재의 진척 사항 같은 것이 죽 점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취임해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하 위원** 파악을 해서 더 구체적인 것을 방법을 이제 정립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개략적으로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북한의 위협’ 할 때에 핵과 미사일 이런 위협이 지금 가장 크게 등장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그렇습니다.

○**황진하 위원** 핵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되어 있나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부는 개념적으로만 되어 있고, 아직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진하 위원** 그리고 또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냐,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내년도에 저희가 패트리어트-2급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것으로 완벽하지는 않고, 그것이 2012년까지 추진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갖추고, 또 그 외에 이제 제2단계 사업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완벽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황진하 위원**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래식 군사위협 중에서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이 세계 최대의 특전 병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황진하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우리는 적절한가 이것도 사실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황진하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미스터 장사정포’ 말씀이 나왔는데, ‘장사정포 위협’ ‘장사정포 위협’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슨 대화력전이라는 게 세워져 있지만 정말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도로 대화력전 대비태세가 되어 있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요소다……

큰 덩어리로 봤을 때, 북한의 어떤 위협의 특징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맞는 것이냐…… 지금 우리 국방개혁의 특징은 뭐냐 하면 병력 감축,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구조의 축소,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합동문화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핵과 미사일 또 그다음에 특수전 병력이라든지 또 장사정포라든지 이런 재래전 위협 이런 것 등등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주변국의 그런 잠재 위협에 대한 대응, 그리고 불특정 위협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소위 비대칭전력이라 하는 것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국방개혁인가 이런 것을 잘 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쉬운 것은 말이지요, 자꾸 NCW를 강조하거든요. ‘네트워크 중심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선진국으로 가야 하고 선진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쪽에서는 맞지만 그냥 그런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NCW냐? NCW라는 것이 무슨 굉장히 발전된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닌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우리는 평가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게 되는 적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러 개의 다양한 위협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지금 저희 국방개혁 전체에서는 군 자체의 병력 규모는 줄이면서 이것에 다 대응하는 겁니다. 사실 병력 규모가 3분의 2로 된다 해서 육군이 국민한테 제공해야 될 국방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야는 오히려 현재보다, 그대로 같거나 아니면 더 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 저희한테 떨어진 정말 대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렵지요. 사실은 과제는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NCW는 그러한 센서와 슈터를 연결하면서 그것을 하는 그걸 통해서 소위 여러 가지 센서와 여러 가지 슈터를 연결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은 비용을 갖고 효율을 높일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국방개혁을 해 나가는 하나의 도구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효율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하 위원** 그러니까 NCW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라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이 되거나 현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팩터(factor)들이 검토되는 과정 속에서 그냥 NCW라고 하는 걸로 너무 많이 가 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국방개혁’이라는 말로 다 커버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잘 검토를 해서 우리가 국방개혁도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금년도에 그것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것 잘 검토해서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

**○황진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무기도 첨단화시키고 여러 가지 훈련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훈련 여건은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무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것인지, 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방법 이런 것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17대 국회를 지내면서 죽 강조해 왔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무기체계를 첨단화시키고 좋은 무기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무기를 가지고 훈련시킬 수 있는 여건,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것 잘 갖춰 놔야 충분히 대비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강조를 했거든요.

아까 질의 나온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도 한번 같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황진하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2월 28일 ROTC 임관식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정부는 군 복무를 영광으로 알고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군을 감사하고 존중하며 아끼는 사회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ROTC 임관식에서 하셨거든요. 말씀 들으셨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들었습니다.

**○황진하 위원**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표현되었는데 합참의장으로서 이러한 군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걸 요구하실 예정입니까? 너무 좀 질의가 저거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망에 저희 군이 해야 할 일은 정말 군대가 군대다운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라는 게 결국 강해야만, 지금 아마 자녀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기 아들이 너무 힘들게 교육훈련 받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러나 군대 자체가 강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요구하실 겁니다. 즉 군대는 강해야 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또는 전쟁이 되었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하여간 군대를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훈련이 아닌 시기에는 병사들이 정말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또 자기 개인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지만 그러나 훈련은 훈련답게 해서 정말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국민 여망에 답할 수도 있고 또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에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진하 위원**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군이고 정부 조직이고 대개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제가 이것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군이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하고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김명자 간사, 김성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합참의장께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군 계급이면 계급, 각 지역별로라든지 각 군대 요소 요소별로 현장에서 정말 군 사기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이 이런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찾아서 '제가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각하께 보고를 드리면서는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같이 가지고 주문하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알겠습니다.

○황진하 위원 그래서 현장 현장에서 느끼고 요소 요소에서 느끼는 그런 요소를 정확하게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또 그걸 해결해야 진짜 군이 사기가 올라가는…… 그런 요소를 정확하게 찾아서 건의드리는 것도 우리 군 최고 군령권자로서 하실 일 중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나 주문하는 겁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황진하 위원 제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전국구 국회의원을 하면서 주로 국방위원만 계속했는데 이번에 지역구에 나갔는데 지역구에 가서, 제 고향이 전방 지역이니까 계속 다녀 보고 전국구 국회의원 할 때도 국방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걸 계속 경험을 했어요. 옆에 존경하는 고조흥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뭐냐 하면, 이것 주문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많이 따져 보고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방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전방 지역 주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분단국가가 됐을 때 전방 지역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았다 하는 사항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 기간 동안에는 가장 사망자도 많고 피해도 많고 재산 피해도 많고, 이렇게 피해를 받은 것이 전방 주민들입니다.

그다음에 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어땠느냐? 마찬가지로입니다. 계속적으로 간첩이 출몰하고 무장 공비가 출몰하고, 그러다 보면 통행금지도 제일 오랫동안 하게 되고…… 지금도 자기가 재산권 행사하려고 그러면 '군사작전 동의를 얻어야 된

다' 그래 가지고 올라가면 그중에 30%도 안 되다가 이제 조금 나아져서 한 40~50% 되다가 이제 조금 나아져서 50~60%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전방 주민이라고 하는 분들은 거기에 사는 것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사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아까 고조흥 위원님 이 말씀하신 거나 다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잘 검토해서 보다 더 주민들의 편의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진하 위원 우리가 군사작전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어떤 것은 군사작전상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전방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답을 바로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군사작전 동의를 주는 것을 군이 그 주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 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아주 참 제가 듣기 민망한 얘기들도 많이 들어요. 이것은 주민한테 양해를 받는 것이거나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정부라든지 군이 '거기에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주거나 시혜를 주는 게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이 생각을 확 바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당히 많은 군 책임자들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수 있는 아리ारी한 그런 사항을 할 때 허락을 안 해 주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괜히 잘못했다가 오해를 받을 소지, 누구로부터 로비를 받았느냐, 누구로부터 압력을 받았느냐…… '허락을 안 해 줘 버리면 불평은 나오지만 내 신상에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에 있는 지휘관, 그러니까 사단 이하 연대장, 대대장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책임져 줘야 되느냐? 장관 아니면 합참 급

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아주 위축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지요. 이것을 굉장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표현이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 전방 지역에서 군사작전 동의를 한다 뭐 한다 할 때 기준을 고루한 지역 방어, 진지전 이런 개념에 입각한 그런 평가를 한다는 사항입니다.

지역 방어가 필요한 곳도 있고 진지전을 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현대와 같은 무기체계, 현대와 같은 전술교류를 가지고 싸울 때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참 답답해하고 자기 재산권도 받아야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과 같은 고도 제한, 뭐 한 거, 뭐 한 거…… 자꾸 이래 가지고 전부 평가하는 기준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교류도 바뀌었고 뭐도 바뀌었고 무기체계도 바뀌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잘 모르면서도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이지요.

제 말씀은 무조건 그걸 다 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이 메어 있다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최전방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갑갑해하고 오히려 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고 자꾸 그런 게 누적된다고 하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래서 군이 풀 것은 풀고 범정부적으로 노력할 것은 노력하면서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나가야 우리 군이, 특히 전방 지역에서는 전시가 되면 더 지역 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원성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항, 사례를 많이 들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군 당국에다가 협조도 하고 국방부 쪽에도 그런 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합참의장 청문회에서 이제 막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리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잘 알고 또 군 경험도 갖고 계시고 또 지역구의 문제를 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전부 고려해서 잘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참의장으로 내정이 되셨고 오늘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이제까지 나온 거 보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최초의 합참의장으로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을 막강한 군대, 사기 높은 군대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황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역구의 원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김명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자 위원 아까 마무리 말씀으로 소요제기 관련해서 결론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소요제기와 결정방식 때문에 우리 군사 R&D와 방위산업의 성과, 이것이 국가 산업경쟁력 그리고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 군에서 선 소요제기를 하고 후에 합참이 조정하는 방식, 그 가운데서 긴박한 위협이다 그래서 조기 전력화를 강조하고 또 과도한 작전요구성능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해외 도입에 의존도를 높이는 그러한 관행이 지속되어 온 결과 방위산업은 그 가동률이 50%대이고 그리고 R&D의 성과가 산업으로 연관되지 못하고 한 측면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어서 합동성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소요결정이 이루어지고 좀 더 중장기적인 그런 시간대에서 전력 확충, 전력증강 계획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렇게 자립도가 떨어지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이러한 무기체계 구축이 아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위원님,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합이 많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걸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을 할 때 저희가 PACC, PAMS라고 그래서 외국의 참모총장들을 불러서 육군에서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 때 22개 국가에서 왔고 또 저희 유엔 참전국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개국과 와서 했을 때 저희가 저희 육군의 무기체계를 전부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보고 저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참, 우리나라가 간도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대부분 스스로, 자력으로 생산해서 쓰려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하다는 그런 얘기도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보다 훨씬 선진국가인, 미국이나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가에서도 이렇게 대단한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참 겁도 없다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이런 R&D 노력과 중소 이런 회사까지 다 묶어서 그동안 방위산업에 나름대로 역할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게 지금 K-9과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 해외에 팔고 있고 또 T-50 같은 것도 팔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크게 가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소요제기 분야에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절차를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잘 개선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자 위원** 최근에 그런 노력이 가지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 규모는 세계 6위입니다. 그런데 무기 수입은 세계 9위고 무기 수출은 18위~19위입니다. 그리고 거의 전적으로 95% 이상 내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0.4% 정도를 점유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보십시오. 세계 최고 최강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의지에 의해서 좀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JSOP 그리고 각 군의 소요 제기 단계, 절차를 합참의장이 되신 뒤에 좀더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작권 전환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미 이것은 임플러먼트(implement) 되고 있다’ 즉 이미 추진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대비를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지금 세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자 위원** 전구작전 지휘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합참조직이 개편될 것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자 위원** 그러면 작전 지휘를 위한 참모조직이 정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맞습니다.

○**김명자 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김명자 위원** 그리고 작계 5027에 대해서는 어떤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말씀하신 대로 작계 5027도 현재는 연합 작계로서 돼 있는데 그것을 공동작전을 위한 작계로 좀 수정·보완이 돼야 합니다.

○**김명자 위원** 수정·보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자 위원** 거기 세 가지 주요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차별 부대전개계획, 이것은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억제방안, 전투력 증강방안, 이것은 그 틀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상의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글썄, 그것이 과거에는 연합사령관이, 자동 조치가 이루어졌던 사항들인데 이것이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 전력이나 이런 것은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받는 거와 같은 규모 또는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미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명자 위원** PKO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2005년에 국군부대의 국제 평화유지활동

과건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시민단체들의 토론회에도 참석을 해서 공격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 확실하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상당히 전문적인 사람들인데도 PKO와 다국적군을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실제로 PKO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저희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다국적군은 저희가 일종의 동맹국에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서도 PKO는 지금 외통위에서 취급을 하고 또 다국적군은 지금 여기, 주로 국방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자 위원** 그런데 이 혼동되는 것이 PKO 활성화에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국방백서도 그렇고 국방부, 합참이 입장 표명할 때도 자이툰부대도 PKO 부대로 그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 PKO 개념이 그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혼동되는 것으로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PKO에 대한 반대가 더 심하다 하는 것이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이번에 서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합참의장 서면답변서를 주셨는데 거기 2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 재임기간 중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PKO 아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김명자 위원** 이렇게 혼동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고쳐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혼동 때문에 PKO가 고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MD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합참이 우리 군의 MD 참여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맞습니다.

○**김명자 위원** 이것은 비단 군이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좀더 넓게 국가 차원의, 전략적 차원의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옳습니다.

○**김명자 위원** 그런데 이 MD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어떠한 논란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님께서……

○**김명자 위원** MD가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뭐 기술적으로도 또 부정확성이 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군비 경쟁을 촉발한다는 것은 지금 잘 아실 겁니다. MD 자체가 방어무기체계로서 그게 소위 ‘방패를 들고 싸울 것이냐, 아니면 창만 들고 싸울 것이냐, 왜 너는 방패를 들고 싸우느냐?’ 이런 식의, 소위 그런 것이 결국 또 새로운 군비 증강의 문제로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그건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가지려고 하는 무기체계가 그게 적절하냐 하는 그 말씀이십니까?

○**김명자 위원** 그 요격체가 실제 미사일과 교란장치에 대해서 식별을 확실히 하지 못하는, 그래서 기술적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 한반도 지정학적 성격상 그 중심이 짧고 산악지형이라서 현실적으로 그 요격이 어렵다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층·중층·하층 방어체계 뭐 이런 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명자 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막대한 국방예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PSI보다 훨씬 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신중하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아주 믿음직하게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후보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金鶴松 委員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물었던 중에서 북한의 위협이 핵, 두 번째가 미사일, 그리고 세 번째가 장사정포를 비롯한 재래식 무기, 핵은 제가 질문을 했고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이성구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노동, 스커드, 대포동까지 상당히 거리에 따라서 다양화돼 있고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는데, 그중에 KN-02가 2007년 6월 달에 실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알고 있습니다.

○金鶴松 委員 한미연합사령관인 벨 사령관이 KN-02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일 첫째 정확하다, 상당히 사거리가, 과거에 KN-01이 60km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배가 되어서 120km 정도가 되었고……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金鶴松 委員 정확도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빨리 쏜다는 거지요. 옛날에 미사일 자체가 전부 다 액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고체 연료화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쏘는데 시간이 빠르다, 그리고 세 번째에 탄두가 500kg에 달한다, 그러니까 파괴력이 뛰어나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KN-02에 대해서 우리 대비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실제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KN-02가 새로운, 아주 위협입니다. 거리는 한 120km, 평택 정도까지 거리가 되는데 정확도가 과거의 어떤 미사일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습니다. 한 3배, 거리상까지 다 계산해서 한 3배~5배 정도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고체연료고, 되어 있고 또 TEL에 달아가고 금방 움직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와서 한

30~40분 정도면 바로 사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신속하게 기동하고 쏘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표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러한 신속하게 움직이는 타기팅이면서 또 정확도가 높은 타격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여간 다른 어느 미사일보다는 분명히 훨씬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金鶴松 委員 그래서 제가 미 쪽에 이 내용을 알아봤고 작년 국정감사 때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에 다 질문을 했습니다. KN-01은 원래 지대함이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 KN-02는 지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어떻게 갖느냐고 얘기를 하니 사실은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사일을 쏜다는 액체 연료를 가지고 충전시키고 하는 정후가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파악해 가지고 미리 우리가 대비책을 가질 수 있는데 KN-02는 고체연료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한 3, 40분 만에 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책을 갖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공군참모총장한테 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KN-02 같으면 우리 휴전선 부근의 가까운 지점에서 준비를 해서 쏘면 오산비행장까지 날아가는데 오산비행장의 활주로에 이것이 떨어졌을 때 파괴력이 얼마나 했을 때 탄두가 500kg 실렸을 때는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몇 분 안이면 그냥 우리 활주로는 다 파괴가 되는데 공군이 어떻게 대비책을 갖느냐 하니까 답이 없어요, 공군은.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육군에게 물었고 육군도 답이 없었고 결국 우리가 얘기하던 '사전에 탐지해서 먼저 적을 억제하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합참의장이 되시면 북한에 대한 전력 중에서 KN-02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알겠습니다.

○金鶴松 委員 보안 관계상 이 자리에서 얘기 못 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합참의장 되시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할 테니

까 KN-02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金鶴松 委員 그리고 황진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인데 제 지역이 경남 진해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주로 해군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육군도 있고. 그런데 대다수가 군사부지로 많이 묶여져 있고 또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이제 비행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해에 민간인들이 부지를 쓰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또 민간이 어떤 아파트를 짓거나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군과 협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국회의원들 243명의 서명을 받아서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2m밖에 짓지 못하던 아파트를 45m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법을 가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재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군사정부 당시의 군대하고 현재 민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가 된 정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명박 정부가 현재 출범한 지 한 달이 되면서 내세우는 것이 선진화입니다. 군도 역시 선진화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가야 될 선진화는 어떤 내용이냐? 강한 군대와 함께 민의가 바탕이 된 군이 되어야 된다, 민과 동떨어진 군이 되어서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 민이 동의할 수 있는 군이 되어야 군이 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동의합니다.

○金鶴松 委員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군에서도 많은 방법에 대해서 사고방식을 좀 바꿔줘야 된다, 특히 지휘자들이. 현재 군사시설에 대한 보호, 작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합참입니다. 그런데 합참 쪽에 제가 의견을 물었을 적에 결국 합참도 과거의 생각에 빠져 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작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인터넷 구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군대시설에 대해서 어지간한 것은 그냥 상세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것을 누구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간첩이 내려와서 사진 찍고 이런 시대는 다 떠났고요. 그러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북한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얻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건물의 높이를, 보안상 부대 안이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 몇 층 이상 짓지 못한다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예, 그런 분야에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군이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됐고 또 일부 분야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지역 내에 있는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을 옆의 건물 높게 못 짓게 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 저는 충분히 그것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전방지역에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넓은 지역의 훈련장 또는 넓은 지역의 소위 거점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저희가 발전시켜서 지역주민과 갈등이 되지 않는 그런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金鶴松 委員 제가 합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진해에 K-10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K-10 비행장의 활주로 길이가 한 1148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활주로 길이가 짧다 보니까…… 이게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진해 시내 한복판에.

그런데 활주로 길이가 짧다 보니까 옛날에 L-19 하는 이런 비행기는 뜨고 내리다가 지금은 비행기는 단 한 대도 뜨고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전부 헬기전용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해군, 육군 그리고 미군 헬기가 뜨고 내리는 헬기전용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헬기가 뜨고 내리는 데에 따르는 활주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내 한복판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결국 해군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군도 여기에서 같이 합동성 훈련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부대 내에, 진해의 해군 통

제부 내에, 해군이 필요로 하는 지점에 섬이나 또는 바다를 매립해서 헬기전용장을, 정말 첨단화된 헬기전용장을 만들어 드리겠다, 해군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헬기장에 사람이나 물자를 실어서 내리면 시내 한복판을 차량으로 다시 이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쪽에서도 이 헬기전용장을 다른 쪽으로, 군부대 내로 이전시켜 주는 데 대해서는 작전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에 육군 제3정비창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육군 헬기를 여기에서 수리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 이전하는 문제가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내니까 합참에서 반대의견이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KHP 사업이라고 해서 한국형 헬기사업을 지금 현재 사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정비창에 대한 부분은 이쪽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지역민과 해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은, 군도 강하고 민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러한 군부대 내로 이전하는 사업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꺼내면 합참에서 아예 검토해 보기 전에 '이것 작전상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 과거의 군하고 다름이 없다, 그래서 군의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얘기를 귀 기울여서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들었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도 제가 한번 가 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鶴松 委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합동참모의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김태영 후보자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김태영 존경하옵는 김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저에게 저 자신을 돌아보고 합참의장후보자로서의 자세와 각오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을 사랑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따뜻한 격려와 충고는 향후 합참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 지표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반영해서 구체화하고 시행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하여 합참의장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준법성, 책임감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증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축박한 청문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영 후보자께서는 합동참모의장에 임명되신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당부 사항을 명심하셔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합참의장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또 김태영 합참의장후보자와 합참 관계관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고 조 흥	공 성 진	김 명 자	김 성 곤
김 송 자	김 학 송	박 찬 석	안 영 근
유 재 건	이 석 현	이 성 구	황 진 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기	노	진
전문위원	손	충	덕

○출석 공직후보자

김태영

○정부측 참석자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정	택	환
기획조정관	문	점	수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김	중	련
군사정보부장	김	왕	구
전략기획차장	신	현	돈